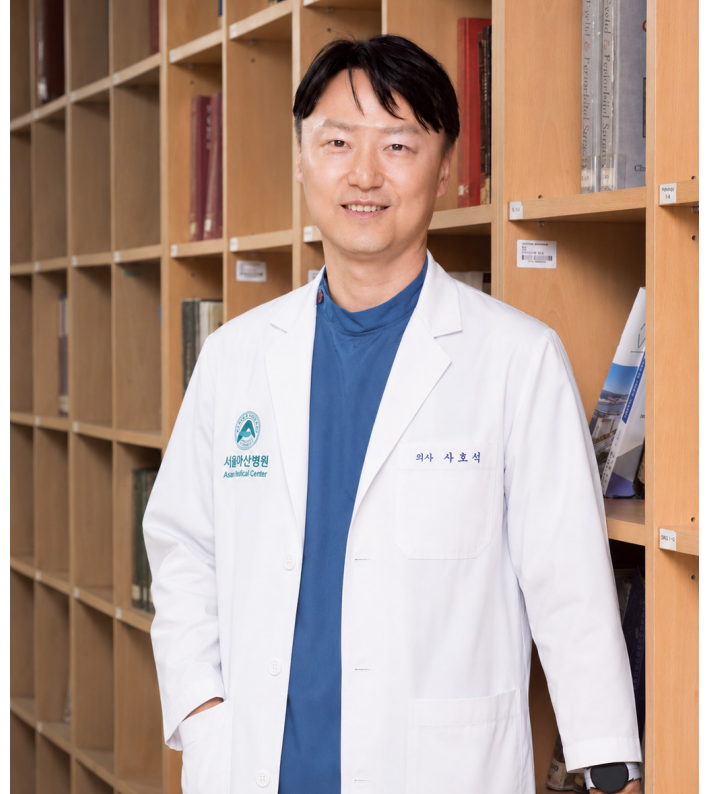


눈의 기능과
아름다움,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다



사호석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안와 재건 기술' 특허를 비롯해 성형안과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사호석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의 연구는 늘 진료실과 수술장에서 출발한다. “연구만을 위한 연구는 좋은 연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기술이 실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수술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고민한다.

“안과라고 하면 흔히 시력을 교정하거나 안구 자체를 치료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성형안과는 눈꺼풀, 눈물길, 안와라고 불리는 눈 주위의 뼈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생기는 종양 등 안구 주변을 둘러싼 구조를 진료합니다. 눈을 둘러싼 구조물이 눈의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돕고, 동시에 외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며 환자의 삶의 질과 마음까지 함께 살피어야 하죠.”

전문성 높은 협업 환경이 장점

사호석 교수는 특히 눈 주변 구조를 다루는 치료가 영상의학과, 병리과, 종양내과 등 여러 진료과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큰 매력으로 꼽는다. “성형안과는 혼자 잘해서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여러 과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고, 팀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처럼 각 분야 최고의 의료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제게 큰 장점입니다.” 사호석 교수가 개척한 ‘3D 프린팅 기반 안와 재건 기술’은 서울아산병원의 전문성 높고 활발한 협업 환경에서 태어났다. 사호석 교수는 “병원 안에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실현해 줄 전문가가 많고, 좋은 아이디어와 협업이 만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로 태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복잡한 골절환자, 안와 변형 환자를 많이 접하면서 3D프린팅 기술을 치료에 접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의 의공학과 교수님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신했고, 공학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안와골절이나 안와종양 수술 후 눈 주변 뼈 구조가 변형된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나 인공 삽입물을 적용해 보다 정밀한 재건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에는 과거 평면 형태의 임플란트를 삽입하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함몰된 안와의 부피를 입체적으로 채워주는 방법까지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가 연구의 기준

사호석 교수의 마음에는 한 환자의 기억이 깊이 새겨져 있다. 눈물샘 암을 치료받고 한동안 경과가 좋았던 환자는 전이가 발견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안과 의사로서 드물게 환자의 임종을 경험하며 안와종양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로 연수를 가게 된 것도 그 환자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도 문득문득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 사호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안와 우연종 치료 기준을 제시했다. 안와 우연종은 건강검진이나 두통 검사 등 다른 목적으로 CT나 MRI를 촬영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눈 뒤쪽 공간의 혹이나 종양을 말한다. 최근 영상 검사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호석 교수는 연구를 통해 증상이 없고 눈 깊숙한 후방에 위치한 양성 종양은 수술 없이 정기 관찰만 해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

었다. “사실 수술하는 의사로서는 종양을 발견하면 깨끗하게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눈 뒤에 종양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수술이 정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하고요. 환자의 불안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안전하게 치료하는 맞춤형 진료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사호석 교수는 항상 연구의 기준을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에 두고 있다.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염두에 둔다. 선배들이 쌓아온 진료 경험과 연구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기반 위에서 환자의 불편과 필요를 살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그의 길이라 믿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실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싶어

사호석 교수의 관심은 진료실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한국 성형안과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의사들과 지식을 나누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아시아태평양 성형안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아·태 성형안과학회 학술지 총편집장과 미국 성형안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국 대련의과대학 초빙교수로 위촉돼 2028년까지 강의와 임상·연구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해외 학회에 나가면 케이팝이나 K-드라마 같은 문화적 영향 덕분에 먼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 ‘K-의료’의 높은 수준과 실력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병원 안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와 나누어야 합니다. 환자도, 의사도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신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시작된 질문은 연구가 되고, 그 연구는 다시 환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병원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것이 사호석 교수가 ‘성형안과’라는 남다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다. **글 편집부**



사호석 교수(가운데)가 안와골절 환자에게 맞춤형 3D 인공뼈 삽입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